

## 나이지리아 일레이페(Ilé-Ifé) 지역의 요루바 문화를 통해서 본 문화 상대성 재인식 - 조각상과 창조신화를 중심으로 -

조 지 속  
(경희대학교)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나이지리아 남서부에 위치한 일레이페(Ilé-Ifé, 혹은 이페Ifé)를 중심으로 그 지역 고대 유물과 창조신화를 통해 현재 나이지리아 요루바족 예술문화 전통의 근원을 살펴보고, 문화의 상대성에 대해 상고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구전 전통에서 왕국 이제부, 오요, 베냉은 그 기원을 모두 일레이페지역에 두고 있고, 특히 오요와 이제부 왕국의 건립자는 일레이페의 통치자이며 요루바족의 신 오두두와(Oduduwa)의 아들들이라고 전해진다. 이처럼 당시 일레이페를 중심으로 세워진 왕국들은 같은 지역과 동일한 창조신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요루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예술과 문화 전통의 근원인 일레이페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일레이페에 뿌리를 내린 요루바족은 자신들의 예술성을 태초부터 꾸준히 간직해 왔으며, 수세기 동안 그 형식과 형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오면서 현재까지도 그들의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의 증거들이 요루바족의 수많은 예술품들과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이파 점술과 신화 등이다.

이파 점술은 요루바족의 신 '에슈'와 '이파'가 관련된 요루바족 풍습 가운데 하나로 지금까지 요루바족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다. 만일 이러한 요루바족 전통 풍습을 비롯하여 아프리카의 문화와 문명이 비논리적이고 미신적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태초의 것을 원형 그대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을 다른 문화 차원의 기준에서 오도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타문화와 문명의 상대성과 그 문화와 문명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의 다양성과 유연성의 필요를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일레이페, 요루바족, 조각상, 창조신화, 문화 상대성

##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사회적, 종교적 영역의 배꼽’<sup>1)</sup>이라 불리는 나이지리아 남서부에 위치한 일레이페(Ilé-Ifé, 혹은 이페Ifé)지역을 중심으로 고대 유물 및 창조신화를 통해 현재 나이지리아 요루바족 예술문화 전통의 근원을 살펴보고, 문화의 상대성에 대해 상이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레이페가 나이지리아 요루바 예술과 문화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 예로 요루바족 출신의 198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월레 소잉카(Wole Soyinka, 1934~)가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GNP 1위, 최다 인구분포, 외국 투자율 1위인 아프리카 최대 국가 나이지리아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세 부족은 요루바족, 하우사족-플라니족<sup>2)</sup>, 이그보족으로, 그 가운데 우선적으로 요루바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요루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예술과 문화 전통의 근원인 일레이페 지역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과거 일레이페와 그 인근 지역에서 번영을 누렸던 세 개의 왕국 베냉, 오요, 이제부 이 세 왕국의 소개를 시작으로 할 것이다.

나이지리아는 넓은 면적과 지리상 위치로 과거 고대 아프리카 대륙의 교역 역할을 하였다. 왕국이 존재하던 시대에 옛 나이지리아에는 카넴-보르누(Kanem-Bornu, 혹은 보르노Borno)왕국, 베냉(Bénin, 혹은 베닌Benin)왕국, 이제부(Ijebu)왕국, 오요(Oyo, Owo)왕국 등 많은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지닌 왕국들이 존재하였다. 각 왕국을 대표하는 주요 종족을 보자면, 우선 카넴-보르누 제국은 850년 무렵 아프리카 동북부에서 이주해 온 종족들이 기존의 농경 원주민들을 규합하여 건설하였다. 베냉 왕국은 에도족(Edo)이, 남부 지역에서는 요루바족이 중심이 되어 오요 왕국과 이제부 왕국을 세웠다.

이 가운데 일레이페는 나이지리아 창조신화가 탄생한 곳으로 이 지역은 신화뿐만 아니라 여러 구전이야기들과 옛 왕국의 유물들을 간직하고 있는

1) 월레 소잉카, 『오브 아프리카』, 왕은철 역, 삼천리, 2017, 65쪽.

2) 하우사족과 플라니족은 수세기 동안 서로 많이 섞여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된다.

보고이기도 하다. 소잉카는 자신이 살던 지역이기도 한 일레이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일레이페 사람들은 마치 선사시대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괴 위에서 즐기고 있는 용 같다. 무지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곤한 그들은 존경과 높은 지위와 종교적인 우월성을 자신들에게 부여하는 옛 도시를 지키고 있다. 그들이 그러한 것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처음 세운 자들의 피가 흘러지고 증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그들을 구조해 줄 구조선이 원래의 고대적인 창조외면적인 형태로 오지 않았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이 활발한 지적 활동의 시대에 말이다.<sup>3)</sup>

구전 전통에서 왕국 이제부, 오요, 베냉은 그 기원을 모두 일레이페지역에 두고 있고, 특히 오요와 이제부 왕국의 건립자는 일레이페의 통치자이며 요루바족의 신 오두두와(Oduduwa)의 아들들이라고 전해진다. 이처럼 당시 일레이페를 중심으로 세워진 왕국들은 같은 지역과 동일한 창조신의 공통분모를 통해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림 1] 일레이페

일레이페에서는 청동과 테라코타로 된 작품 등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들은 일레이페 지역에 발달된 문명사회가 존재했으며 그 예술적 수준도 상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불어 요루바족에게는 창조신화를 비롯하여 여러 구전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구전된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창조신화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특히 창조신화는 일레이페 지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을 후에 채록하여 남긴 것이기 때문에 여러 주장과 판본이 존재하며, 파편적이고 단편적이었다. 모든 연구가 그러하겠지만 본 논문은 산재된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특별히 요구되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본론의 첫 장은 일레이페 지역에 존재했던 왕국

3) 『오브 아프리카』, 63-64쪽.

들에 대한 자료들의 정리와 자료를 중심으로 한 부분적 분석의 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창조신화를 중심으로 요루바족의 정신문화의 근원과 그 영향을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문화의 상대성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며, 독선적이고, 편향되어 있다. 다음의 소잉카의 경험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신들은 아프리카 인들이 선천적으로 열등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며 다른 인종들이 수백 년 동안 당신들을 노예로 삼지 않았을 테지요. 노예로 삼은 사람들은 당신들을 있는 그대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은 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sup>4)</sup>

이것은 소잉카가 독일에서 강연을 마친 후 이어진 만찬에서 한 독일 청년이 소잉카에서 한 발언이다. 과연 청년의 말대로 아프리카가 수백 년 동안 열등하기만 한 대륙이었을까? 아프리카의 문명은 서구 문명보다 더 일찍이 발생했고, 발전된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는 이를 인정하고자 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대륙에도 서구사회와 같은 문명과 정신세계가 분명히 존재했고, 이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 II. 일레이페와 고대 왕국들의 조각상

### 1. 베냉 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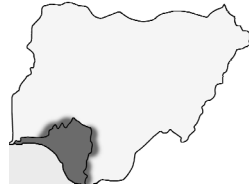
11세기(혹은 12세기)경에는 지금의 니제르 삼각주 지역에 예도족이 세운 베냉 왕국이 나타나기 시작한다.<sup>5)</sup> 베냉 왕국은 사실상 일레이페 지역에 세워진 왕국은 아니다. 그러나 일레이페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베냉 왕국은

4) 『오브 아프리카』, 12쪽.

5) 옛 왕국인 베냉과 현재의 공화국인 베냉은 서로 다른 지역이다.

요루바족의 중심 지역인 일레이페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sup>6)</sup> 베냉 왕국은 ‘아마도 11세기경 서부 아프리카의 해안 내륙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고도로 발달된 제국 가운데 하나’<sup>7)</sup>라는 기록이 있다. 이 왕국은 수세기에 걸쳐 번성하여, 15세기에서 16세기경에는 부유하고 강력한 왕국으로 자리 잡으며 황동과 청동주물 주조법, 상아조각 등 예술품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베냉 왕국은 1897년 대영제국에 합병되고, 왕국의 주요 예술품들은 현재 영국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은 베냉 왕국으로부터 영국이 가져간 수많은 전리품 가운데 하나로, 오바(Oba)라고 하는 베냉의 왕과 그 수행원들의 행렬을 보여주고 있다. ‘수행원들은 방패를 이용해서 왕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들은 정교한 패턴이 들어간 고급의상을 입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베냉 왕국의 황동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은 일’<sup>8)</sup>이다. 그럼에도



[그림 2] 베냉 왕국



[그림 3] 나이지리아/ 베냉의 오바조각의 놋쇠판.

16세기 작품,

‘The British Museum’ 소장

6) <https://www.britannica.com/place/Ile-Ife> (검색일 :2017.09.01.)

Ifè had great political and cultural influence over the Edo kingdom of Benin to the southeast.

이페는 남동지역까지 베냉의 에도 왕국에 대단한 정치적, 문화적 영향을 끼쳤다.

7) Robert W. Strayer, *Ways of the World: A Brief Global History with Sources*, New York, Bedford/St. Martin's, 2012, pp. 695-696.

“one of the oldest and most highly developed states in the coastal hinterland of West Africa, dating perhaps to the eleventh century CE”

8) [https://www.britishmuseum.org/PDF/british\\_museum\\_benin\\_art.pdf](https://www.britishmuseum.org/PDF/british_museum_benin_art.pdf) : *Benin : an African Kingdom*, p.10. (검색일 : 2017.08.20.)

The one below seems to show a procession, with a king or chief flanked by attendants who shade him from the sun with their shields. They are dressed in fine cloth worked in elaborate patterns, whose colourful appearance we can only now imagine. [...] But, as with so many of the Benin plaques, exactly what this

불구하고 이 황동판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하다. 황동판 작품들은 주로 왕궁을 장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당시 베냉 왕국의 왕궁은 도시 전체 크기의 1/3정도에 해당<sup>9)</sup>했는데, 그 크기의 거대함과 화려함은 베냉 왕국의 번영과 왕의 권력의 막강함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베냉 왕국의 장인들은 예술적 감각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제작기술이 상당히 세련되고 뛰어났는데, 이러한 사실로 베냉은 에도족이 세운 왕국이지만 그 문화는 요루바족의 영향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요루바족의 문화예술의 기원을 이페 북동쪽에 위치한 노크(Nok)<sup>10)</sup>지역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노크지역의 테라코타 및 여러 유물들이 이 폐지역에서 출토된 요루바족 조각상들, 그리고 베냉의 작품들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은 분분하다. 아프리카 예술 작품들에 대한 관련 지식은 대부분 단편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견되는 유물들과 베냉 왕국에서 왕을 칭하는 ‘오바’, 오요 왕국에서 주를 다스리는 장(長)을 일컫는 ‘오바’ 등 동일 단



[그림 4] 노크문화지역

scene was meant to show is now difficult to interpret.

아래의 그림은 행렬을 보여주고 있는데, 왕 혹은 우두머리의 수행원들이 그에게 태양빛이 닿지 않도록 측면에서 방패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다. 우리가 지금은 상상만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화려한 색의 정교한 패턴의 고급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다. 그러나 베냉 왕국의 이러한 황동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는 일은 쉽지 않다.

9) [https://www.britishmuseum.org/PDF/british\\_museum\\_benin\\_art.pdf](https://www.britishmuseum.org/PDF/british_museum_benin_art.pdf): *Benin : an African Kingdom*, pp.10-11.(검색일 : 2017.08.20.)

They[the Portuguese] were particularly surprised at the size of the palace, which comprised about a third of the whole city.

그들(포르투갈 인들)은 특히 왕궁의 규모에 놀랐는데, 그 크기는 전체 도시의 1/3에 해당했다.

10) 유물들이 출토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노크문화라고 한다. 노크문화는 BC 500년 경부터 AD 200 경 사이 초기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1931년에 사나라와 고원에 있는 노크 마을 부근에서 채광작업을 하던 중 서부아프리카 최초의 예술 품이라 할 수 있는 테라코타로 된 조각상의 머리 부분이 발굴된 것을 시작으로 이곳에서 유물 수백 점이 발굴되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철제 도구, 돌로 된 도끼와 도구들, 그리고 돌 장신구 같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어 사용을 통해서 볼 때, 이페지역, 노크지역 그리고 베냉 왕국은 서로 인접한 지역에 존재하면서 문화와 정치에 있어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여전히 그 시대의 예술을 전수받으며 그들만의 독특한 전통 기술을 이어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밀랍주조기술(*la technique de la fonte à la cire perdue*)이다.



[그림 5] 노크테라코타, 'Louvre' 소장

La technique de la fonte à la cire perdue est la plus traditionnelle pour la fabrication d'objets en bronze, en lation ou en or, témoins d'un art qui a traversé les temps, mémoires vivantes de l'habileté et du savoir-faire des artistes africains.<sup>11)</sup>

밀랍주조기술은 시간을 뛰어넘는 예술의 증거이자, 아프리카 장인들의 숨쉬와 기량의 살아있는 기억으로, 청동, 황동 혹은 금으로 된 오브제의 제작에 있어서 깊은 전통성을 지니고 있다.

[그림 6]은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청동 마스크다. 청동은 구리, 주석, 아연 등으로 만들어진 합금으로, 베냉의 장인들은 합금 주조에 능했다. 밀랍과 점토, 금속관 등을 이용한 마스크 제작과정은 오늘날까지 그 방법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La première étape de cette technique est la réalisation du modèle en cire (autrefois de la cire d'abeilles) sur une âme d'argile; des petits tuyaux sont disposés aux endroits les moins fragiles de la future pièce afin de pouvoir couler le métal en fusion lors de la dernière phase. Le modèle en cire est recouvert de couches d'argile qui vont constituer le moule définitif, consolidé d'un cerclage en fer. Celui-ci est alors chauffé à la même température que celle où se forme l'alliage de métal. La cuisson fait

11) Laurick Zerbini, *l'ABCdaire des Arts africains*, Flammarion, 2004, p. 42.

fondre la cire qui est récupérée et remplacée par l'alliage en fusion versé dans les tuyaux, qui se répand dans les creux du moule. Une fois le moule refroidi, il est brisé pour en extraire la pièce de bronze, qui restera. Unique puisque le moule fracturé ne peut être réutilisé.

De nombreux objets sont encore aujourd'hui fabriqués selon cette méthode « ancestrale» [...]12)

이 기술의 첫 번째 단계는 점토로 된 심형위에 밀랍으로 된 모형을 제작하는 것이다. 가장 마지막 과정 때 용해된 금속을 부어내릴 수 있도록 완성될 작품의 가장 약한 부분에 작은 관들을 배치한다. 밀랍모형을 점토로 덮는데, 이는 최종의 주형들을 만들어주게 된다. 그리고 철로 된 테로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이 모형을 금속 합금이 형성되는 온도와 같은 온도로 가열시킨다. 가열로 밀랍을 녹이는데, 밀랍은 관속에 쏟아 부은 용해 금속으로 보충되고, 대체된다. 그리고 이 밀랍은 주형틀 빈 곳에 흘러 들어간다. 식은 주형틀을 남겨진 청동 작품을 틀에서 꺼내기 위해 산산조각을 낸다. 이때 부서진 주형틀은 재사용할 수 없다.

오늘날 수많은 작품들이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그림 6] 나이지리아/베냉 밀랍주조마스크  
'musée national des Arts d'Afrique et d'Océanie' 소장

베냉 왕국의 발전된 문화와 예술을 증험한 이들은 포르투갈 인들이다. 베냉 왕국에 첫발을 디딘 포르투갈 인들은 당시 포르투갈과 비교해서 베냉 왕국의 웅장함과 거대함에 놀란다.13)

12) 위의 책, p. 42.

13) [https://www.britishmuseum.org/PDF/british\\_museum\\_benin\\_art.pdf](https://www.britishmuseum.org/PDF/british_museum_benin_art.pdf): *Benin : an African Kingdom*, p.10.(검색일 : 2017.08.20.),

In the 16<sup>th</sup> Century, when the Portuguese first came to Benin city, they were greatly impressed by its size and grandeur, which compared well with any city in Portugal at the time.

16세기에 포르투갈 인들이 처음 도시 베냉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베냉의 규모와 웅장함에 대단한 감명을 받았다. 그곳은 당시 포르투갈에 있는 어떤 도시와



이처럼 거대함과 화려함을 자랑하던 베냉 왕국은 예술 문화의 전통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상업적 문화에 무너진다. 16세기(혹은 15세기)에 들어온 포르투갈인은 나이지리아 남부지역에서 가장 세력을 떨치고 있던 이 베냉 왕국과 노예매매의 외교관계를 맺게 된다. 이것이 결국 베냉 왕국의 몰락을 가져왔다. 베냉 왕국의 전사들은 내륙지역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 사람들에게 노예로 넘겼다. 이에 베냉 왕국은 16세기에 절정기를 맞이하게 된다. 유럽의 무기에 현혹된 베냉 왕국은 노예를 팔고 대신 총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주변국들도 유럽의 총을 얻게 되면서 왕국끼리의 전쟁은 격렬해졌다. 이틈을 타 유럽인들은 베냉 왕국을 공격했고, 힘이 약해진 베냉은 결국 영국에 의해 몰락하게 된다.

이후 베냉 왕국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유럽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유럽 세력은 자신들이 목격한 놀라운 문명이 존재했음에도 아프리카의 문명과 문화를 폄하하기 시작한다. 아프리카가 유럽 기준으로 상업적 측면에 있어서는 앞서있지 못했다 해도, 그것이 문화와 문명 전반에 걸쳐서 뒤쳐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프리카에도 그리스·로마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오며 신들이 거주하던 올림포스의 리토코로(Litocoro : 신들의 도시)와 같은 성지가 존재하며, 그곳이 오요 왕국이 건국된 일레이페이다.

## 2. 오요 왕국

오요 왕국<sup>14)</sup>은 오늘날 북서부 중앙 나이지리아와 베냉 동부에 위치했던 요루바족이 세운 왕국이다. 주변 도시에서 카카오, 목화, 야자유 등의 농업이 번성하면서 오요는 농작물 거래의 중심지가 되고 왕국은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오요



[그림 7] 오요 왕국

도 비교가 될 만했다.

- 14) 오요 왕국은 신오요제국(New Oyo empire)과 구오요제국(Old Oyo empire)이 있다. 신오요제국은 1837년 구오요제국의 몰락이후 구오요제국 남쪽으로 130km 떨어져진 나이지리아 남서부 지역에 새로 건국된 국가이다. 본 연구는 구오요제국을 중심으로 할 것이며, 이하 구오요제국을 ‘오요 왕국’이라 칭하겠다.

왕국의 요루바족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지만 약 15%의 사람들은 장인들이었고, 현재까지 그들이 아프리카 예술에 끼치는 영향은 언급한 바와 같이 지대하다. 오요 왕국의 탄생지인 이페는 요루바 문화의 요람이며 요루바족 여러 신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신성한 도시다. 이 도시에서는 앞서 언급한 노크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유사한 테라코타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이는 이페 문화가 노크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그림 8]의 작품은 일레이페에서 발견된 테라코타 두상으로 노크지역의 테라코타 작품들과 유사함을 보인다. 오요 왕국의 이페지역과 베냉 왕국에서는 테라코타와 청동을 이용한 조각상 재료에 사용과 제작에 있어서도 동일성을 보인다.



[그림 8] 12세기-14세기  
이페 두상  
'musée national des Arts  
d'Afrique et d'Océanie'  
소장

이페지역의 청동상 연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독일의 민족학자 레오 프 로베누스(Leo Frobenius, 1873-1938)<sup>15)</sup>다. 그에 따르면 청동상의 제작은 왕의 대권을 상징하며, 미학적, 기술적면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예술품들을 남긴 시기가 바로 12세기에서 15세기<sup>16)</sup>로 [그림 8]도 바로 이 시기다. 또한 오요 왕국이 건립되기 1세기 전으로 오요 왕국이 건립되고 번영을 누리던 때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오요에서는 대권을 지니고 있던 왕을 알라핀(Alafin, Alaafin)<sup>17)</sup>이라고 불

15) *l'ABCdaire des Arts africains*, p. 59.

En 1909, l'ethnologue allemand Léo Frobenius entreprend des recherches à Ifè et [...].

16) 앞의 책, p. 53 참조.

La fabrication de bronzes est une prérogative royale, [...]. La période du XII au Xve siècle a laissé les témoins artistiques les plus remarquables, des points de vue esthétique et technique.

17) 알라핀은 절대왕권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 대신에 국가 최고 평의원으로 실질적 권력자였던 오요메시(Oyomesi)가 있었다. 오요메시는 권력의 순서대로 바소룬(Basorun 혹은 바쉬룬(Bashrun)), 아그바킨(Agbakin), 사무(Samu), 알라피니(Alapini), 라구나(Laguna), 아키니쿠(Akiniku), 아시파(Asipa) 일곱 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왕을 임명하고 왕권을 견제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으며, 왕은 세습이 되지 않지만 그들의 직(職)은 세습되었다. 그러나 반드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질 필요는 없고 같은 집안으로 세습될 수 있었다.

렸다. 알라핀은 중앙정부를 다스렸고, 나머지 지역은 ‘오바’라고 하는 주의 장(長)들이 다스렸다. 알라핀과 오바는 봉건주의적 관료체제인 주종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런데 ‘오바’라는 명칭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냉 왕국의 왕을 지칭하는 말이 ‘오바’였던 바, 베냉 왕국은 오요 왕국의 주(州)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두 왕국의 비슷한 건립시기와 베냉 왕국의 지배자의 호칭은 ‘오바’로 이는 오요 왕국의 주의 장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이다. 베냉 왕국을 세운 에도족은 현재 나이지리아에만 거주하는 민족이며 이들 민족은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 또한 에도족과 요루바족은 유사한 언어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언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작명에 있어서도 서로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에도족은 요루바족에서 기원한 종족일 수 있다. 이러한 증거들로 후에 힘을 키운 베냉 왕국이 오요 왕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왕국으로 독립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요루바족의 오요 왕국에 대한 문화는 현재에도 여러 형태(구전, 유물, 연극, 문학 등)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 극작가인 두로 라디포(Duro Ladipo, 1931-1978)는 오요 왕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요루바 3대 희곡작품이라 할 수 있는 <귀신 잡는 왕Oba Moro>, <왕은 망설이지 않았다Oba Ko so>, <왕은 죽었다Oba Waja>의 작품을 내놓기도 했다. 두로 라디포는 탈식민지 아프리카에서 나타난 가장 잘 알려지고 비평계에서 가장 찬사를 받는 요루바족 출신 극작가이다. 오로지 요루바어로만 사용하여 그는 자신의 작품에서 요루바 신화의 상징적 정신을 표현했고, 후에 사진, 텔레비전, 그리고 영화 등으로 각색했다. 요루바 전통적 이야기에 등장하는 오리샤(Orisha)<sup>18)</sup> 출신의 신 <상고(Sango)는 어떻게 천둥의 신이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극화한 그의 작품은 1965년 1회 영연방 예술제(Commonwealth Arts Festival)에서 국제적 찬사를 받았다. 라디포는 자신의 연극작품에 직접 출연하기도 한다.

라디포의 작품에 등장하는 신 ‘상고’는 요루바족의 네 번째 왕으로 알려져 있다. 전사로 알려진 그는 신이 될 만한 공을 쌓은 덕에 오리샤 가운데 신으로 승격되었다. 상고를 받드는 축일은 12월 4일이다. 상고가 천둥의 신으로 알려진 까닭은 천둥이 치고 폭풍우가 몰려오는 현상은 상고신이 폭풍

18) 오리샤는 신에 가까운 ‘정령’을 의미한다. 공을 세운 오리샤는 신의 반열에 오른다.

우의 구름 속에서 박자를 맞추면서 춤을 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요루바족들은 상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둥소리가 들려올 때면 요루바족은 그에게 인사를 한다.<sup>19)</sup> 천둥소리는 일종의 자연현상이지만 요루바족에게는 자연현상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자연은 친숙하고 익숙하지만 경외의 대상이기도 하다. 즉 자연은 요루바족에게는 신이며 조상이고 늘 함께하는 존재다. 소잉카는 ‘이 아프리카 도시가 보여 주는 수수께끼의 핵심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삶에 대한 현재적 인식과 전혀 접촉이 없는 유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소잉카의 주장대로 요루바족을 비롯한 아프리카 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태고부터의 유산들을 간직하고자 노력하는 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그들의 독특한 자연관과 정신문화를 미신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산업화된 물질문화에 익숙한 서구 중심주의 사상에 기인한 것이다.

### 3. 이제부 왕국

이제부 왕국은 14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15세기경에 형성되고 식민지 이전까지 존재했던 요루바족 왕국이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14세기에 이제부 왕국은 요루바랜드(Yorubaland)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종족이며, 유럽인들과 접촉한 최초의 민족이자 일찍이 교육과 발전된 문명에의 접근기회를 갖게 되었다”<sup>20)</sup>고 한다. [그림 9]의 청동상의 인물은 일레이페의 최고지도자 오바루폰(Obalufon)의 두상으로 오요 왕국 혹은 이제부 왕국의 유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청동두상이 어느 왕국의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두 왕국 모두 요루바족이 건설한 왕국으로 이페라는 공통된 기원을 지니고 있고, 동일한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19) 홍명희 외, 『아프리카의 신화와 전설 - 서부 아프리카편』, 다사랑, 2016, 120쪽 참조.

20) <http://the234project.com/arts-and-culture/nigeria/the-ijebu-kingdom/>(검색일 : 2017.10.31.) 참조.

The Ijebu people are said to be the most populated ethnic group in Yorubaland and allegedly were the first to come in contact with Europeans who gave them early access to education and promoted civilization in the 14th century.

이다.

[그림 10]의 오반타(Obanta, 원래 오그보로간(Ogborogan)는 이제부 왕국의 왕이다. 오반타는 이제부오드의 최초의 왕이자 그의 외할아버지인 오바(왕) 올루이와(Olu Iwa)가 사망한 후, 지금의 수단 근처지역인 와다이(Wadai)지역에서 부족민들을 이끌고 이제부에 도착하여 왕이 되었다고 한다. 이제부에 살던 부족민들을 요루바어로 “oba wa nita”, 즉 “왕이 밖에 있다”라고 외치면서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 이로 인해 ‘오그보로간’은 ‘오반타’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제부 왕국도 베냉 왕국처럼 왕을 ‘오바’라 불렀다. 이것은 베냉 왕국과 이제부 왕국이 오요 왕국에서 생겨난 제국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부 왕국에서는 왕을 ‘아우잘레(Awjalé : 요루바어로 역시 왕을 의미)’라고도 불렀다. 이러한 칭호는 이제부 왕국이 오요 왕국에 그 기원을 두기는 했지만 점차 세력을 키워가면서 하나의 독립된 왕국이 됨을 표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오바’라는 칭호는 오요 왕국에서는 주의 장일뿐이기 때문이다. 오반타의 동상이 있는 곳은 이제부 왕국의 수도였던 이제부오드(Ijebu-Ode)로, 그곳에 아우잘레의 궁전이 있었다. 현재 이제부오드는 오군 주(Ogun State)에 속해 있다. 주의 이름인 ‘오군’은 오리샤 신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오군은 철제무기를 만드는 데 능한 사냥의 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철과 같은 강한 영혼은 금속 안에 깃들어 있고, 그의 강인한 힘은 금속에 살아있다고 한다. 또한 오군 신은 정의와 맹세를 상징한다. 따라서 요루바족은 어떤 일에 대해 맹세할 때 흔히 그의 이름을 외친다.<sup>21)</sup>

오요 왕국의 천둥의 신 ‘상고’의 예에서처럼 이제부 왕국의 오군의 예는 요루바족의 신들은 과거 속에 화석화 된 존재들이 아니다. 요루바족들은 여



[그림 9] 오요/이제부 왕국 청동상 ‘The British Museum’ 소장



[그림 10] 오반타

21) 『아프리카의 신화와 전설 - 서부 아프리카편』, 116쪽 참조.

리 변형된 형태, 즉 축제로, 자연현상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신들을 상기하고 기리면서 매일, 매순간을 그들과 함께 한다. 이러한 전통은 요루바족이 세운 왕국에서는 공통된 문화다.

정치에 있어서도 오요 왕국과 이제부 왕국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오요 왕국의 왕인 알라핀과 주의 장인 오바들로 구성되어있었고, 이제부 왕국에서는 왕인 아우잘레와 6개의 계급



[그림 11] 이제부오드

으로 나뉜 오수그보(Osugbo : 나이지리아 다른 지역에서는 오그보니Ogboni라 함)가 있었다. 오수그보 중 가장 높은 계급은 이와레파(iwarefa), 두 번째 계급은 올리와(Oliwa)라 한다. 이제부오드의 장(長)격인 ‘오리사(Olisa)’는 영향력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 ‘오리사’는 정령을 의미하는 요루바족 신화에 등장하는 ‘오리샤’와 비슷한 철자와 발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사점은 두 왕국이 하나의 뿌리에서 기원하고 있다는 증거다. 오요 왕국에서 언급한 ‘상고’나 이제부 왕국의 ‘오군’과 같은 오리사들은 오요 왕국의 신, 혹은 이제부 왕국의 신이 아니라 공통된 요루바족의 신들이다.

이처럼 에도족(베냉 왕국)과 요루바족(오요 왕국, 이제부 왕국)을 중심으로 건국된 이 세 왕국 모두는 서로 비슷한 세기에 존재하면서 흡사한 문화, 동일한 신화와 유사한 정치체제 등을 보였다. 이들의 이러한 기반에는 일레이페라는 옛 도시가 그 기원이었다.<sup>22)</sup> 일레이페는 요루바족 창조신이 만들고 첫발을 딛고 거주한 곳으로, 이 지역 관련 구전 이야기는 물론 요루바족 작품에 있어서의 대상은 주로 신 혹은 신격화된 인물들이었다. 특히 나이지리아의 대표적인 세 종족(요루바족, 하우스-플라니족, 이보족) 가운데 요루바족을 전통적인 귀족사회로 보는 데 그 까닭은 아마도 일레이페라는 신성 지역에서 기원한 종족이라는 그들 자신의 자부심과 “그 귀족계급이 갖는 권력과 영향력은 여러 해에 걸쳐 약화되어 왔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주요한

22) [https://www.metmuseum.org/TOAH/hd/beni\\_2/hd\\_beni\\_2.htm](https://www.metmuseum.org/TOAH/hd/beni_2/hd_beni_2.htm)(검색일 : 2017.09.12)

In their respective oral traditions, Ijebu, Owo, and Benin all trace their origins to the ancient city of Ile-Ife, [...].

그들 각각의 구전 전통에서, 이제부, 오요 그리고 베냉은 모두 일레이페의 옛 도시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세력이며, 요루바어를 사용하는 종족 집단은 나이지리아 국경을 넘어 베냉 공화국까지 뻗어 있다”<sup>23)</sup>는 사실에서 근거한다 하겠다.

지금까지 일레이페지역과 그곳에 존재했던 왕국들, 그리고 유물 등 실재계를 통한 그들의 문명과 문화를 살펴보았다. 본 장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에도 찬란한 문화와 문명이 존재했었고, 당시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포르투갈인들이 놀랄 정도로 그 규모도 상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정신계를 통한 아프리카 요루바족의 문화를 살펴볼 것인데, 이를 통해 ‘아프리카 인들은 선천적으로 열등하지 않다’<sup>24)</sup>는 사실에 접근하게 될 기회를 갖고자 한다.

### III. 요루바족 창조신화

#### 1. 창조신 ‘오바탈라’와 ‘오두두와’

요루바족 신화에는 401명의 신들이 있다고 전해진다. 그 가운데 창조신 화에만 여섯 신이 등장한다. 우선 최고신 ‘올로룬(Olorun)’, 여신 ‘올로쿰(Olokun)’, 육지를 만든 신 ‘오바탈라(Obatala)’, 오바탈라의 형제 신 ‘오두두와(Oduduwa)’, 예언의 신 ‘오룬밀라(Orunmila)’ 그리고 전령의 신 ‘에슈(Eshu)’가 그들이다. 요루바족 창조신화에는 오바탈라 중심 신화와 오두두

---

23) Martin J. Gannon, Rajnandini Pillai, *Understanding Global Cultures*, Sage, 2010, p. 314, 참조.

The Yoruba are the only major ethnic group with a traditional aristocracy and constitute the most articulate of the Nigerian populace. Although the power and influence of the aristocratic class has diminished over the years, they are still a major social force in Yoruba society. Yoruba-speaking ethnic groups also dwell beyond the Nigerian border in the Benin Republic.

요루바족은 전통적 귀족계급을 지니고 있는 유일한 주요 종족 그룹이며, 나이지리아 대륙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다. 귀족계급이 갖는 권력과 영향력은 여러 해에 걸쳐 약화되어 왔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주요한 세력이며, 요루바어를 사용하는 종족 집단은 나이지리아 국경을 넘어 베냉공화국까지 뻗어 있다.

24) 각주 4) 참조.

와 중심 신화가 있다. 즉 오바탈라가 육지를 만들었다고도 하고 오두두와가 만들었다고도 전해진다. 구전되어 변형된 몇 가지 창조신화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하나의 축은 최고신 ‘올로룬’은 하늘을 지배하고 있었고, 여신 ‘올로쿰’은 아래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과 신들이 처음 육지에 발을 디딘 곳이 일레이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레이페를 만들고 다스린 신들은 오바탈라와 오두두와다. 우선 오바탈라 중심 창조신화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하늘이 점점 비좁아지기 시작하자 올로룬에게 육지를 만들 것을 청한다. 오바탈라는 허락을 받고, 올로룬의 만아들이자 예언의 신인 오룬밀라에게 조언을 구했다. 오바탈라는 오룬밀라가 시키는 대로 했고, 육지가 생겨났다. 모래가 닿은 곳은 육지가 되었고, 더 큰 모래더미는 언덕이, 더 작은 모래더미는 계곡이 되었다. 오바탈라는 언덕으로 뛰어내렸고, 그곳을 이페라고 불렀다.<sup>25)</sup>

요루바족 최초의 왕은 형제 신 ‘오바탈라’ 혹은 ‘오두두와’다. 오바탈라를 비롯 오두두와는 오리샤에 속하는 데, 오리샤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신에 근접한 ‘정령’에 가깝다. 이 오리샤들 가운데서 진정한 신으로 추앙받는 오리샤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이 오바탈라와 오두두와 같은 오리샤들이다. 적어도 천 칠백 여의 오리샤들이 있다고 하며 이들 가운데 공을 세워 신으로 추대받는 오리샤들이 신의 반열에 오른다.

오두두와 중심의 창조신화는 다음과 같다.

오리샤 신들 중 엘리트 오바탈라는 지구를 세우는 임무를 받았다. 하늘의 신 ‘올로룬’은 오바탈라가 일을 시작하도록 진흙, 쇠고리, 다섯 발가락을 가진 닭, 상세한 건축 설명서를 준비해준다. 그러나 오바탈라는 올로룬과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파티에 가버린다. 동생 오두두와는 명성과 영광의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는 하늘의 건축자재들을 훔쳐 자신이 지구를 만들어보려고 시도했다. 오두두와는 카멜레온의 친절한 조언에 따라 천국의 가장자리에 쇠사슬을 내렸다. [...] 초보 건축가 신의 숨겨

25) 『아프리카의 신화와 전설 - 서부 아프리카편』, 103-105쪽 참조.



였지만 그리 나쁘지 않았다. 가장자리가 조금은 거칠며 몇몇 산들이 똑바르지 않지만 괜찮았다. 올로룬은 아들이 한 일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들을 지구의 신으로 승격시켰다. [...] 후에 오두두와는 지구로 내려와 요루바족을 다스렸다. 오두두와는 요루바족 최초의 왕이 되었고, 요루바족 조상의 영웅이며 전설적인 집수리 전문가 신으로 알려진다.<sup>26)</sup>

두 개의 신화를 비교해 볼 때 요루바족과 더욱 관련이 있는 신은 오두두와다. 오두두와는 오요 왕국에서 추앙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부 왕국의 종교 최고지도자인 오니(Oni, 혹은 Ooni)는 오두두와의 현신으로 여겨졌다. 사실 애초에 육지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고안하고 최고신에게 요청한 신은 오바탈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탈라가 요루바족의 창조신으로 추앙받지 못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기 때문이다.

오바탈라는 근처 야자수로 술을 빚었다. 그리고서 그 술을 마시고 또 마셨다. 자신이 취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오바탈라는 다시 진흙을 빚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술이 취해서 그는 불안정한 형상을 많이 빚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바탈라는 그의 창조물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어 달라고 올로룬에게 요청했다. 다음날 오바탈라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잘못 만들어진 그 창조물들을 돌보기로 한다. 그래서 오바탈라는 불구가 되어 태어난 인간들의 수호신이 되었다.<sup>27)</sup>

오바탈라는 술과 파티와 관련된 일화가 많은 신이다. 전설에서처럼 아무리 오바탈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해도 요루바족은 술주정뱅이에다가 게으르고 경솔하기까지 한 오바탈라를 자신들의 창조신으로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오바탈라는 대지를 물에 잠기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다.

새로 창조된 인간들이 오바탈라가 했던 대로 오두막을 짓고 살게 되

26) 위의 책, 103-105쪽 참조.

27) 위의 책, 106-107쪽 참조.

면서, 이페는 곧 도시로 번성해간다. 다른 모든 신들은 오바탈라가 해낸 일에 대해 기뻐했고, 육지를 자주 방문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의 통치자인 올로쿤 여신만 빼고.

오바탈라는 올로쿤과 상의도 없이, 아래 세상에 인간을 비롯해서 새로운 생명체들을 만들어 냈는데, 이는 오바탈라가 올로쿤왕국 대부분을 빼앗게 된 결과를 낳았다. 이에 올로쿤은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바탈라가 하늘 자기 고향에 잠시 들렀을 때, 올로쿤 여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태양의 파도들이여! 땅을 집어삼켜라!”

올로쿤 여신이 일으킨 파도는 육지 대부분을 물에 잠겨버리게 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파도에 휩쓸려 죽게 되었다.<sup>28)</sup>

홍수 신화는 여러 민족 신화에 자주 등장한다. 다른 민족의 홍수 신화에서는 태초에 창조신의 의도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점점 신의 뜻을 어기고 오만해지자 이에 분노한 신이 오만해진 인간들을 벌하기 위해 밤낮으로 비를 내려 인간들을 쓸어버린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요루바족 신화에서는 대지가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은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기분과 신인 오바탈라의 과실 때문이었다. 반면 오두두와는 정당한 방법으로 인간 세계의 지배권을 획득하지는 않았지만, 집수리 등 실질적인 손재주가 많았고, 일을 추진하는 적극성으로 결과적으로는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였다. 따라서 요루바족은 오바탈라가 아닌 오두두위를 자신들의 창조신이자 지배자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요루바족 창조신화에 따르면 일레이페는 두 창조신 오바탈라와 오두두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인류가 처음 번창한 곳이고 여전히 나이지리아 요루바족의 정신적 요람이며 궁지다. 일레이페에 뿌리를 내린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요루바족의 예술적 감각은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서서 신대륙인 미국에까지 인정받고 있으며, 그들의 전통문화인 ‘이파’라는 점술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파 점술’에 있어서는 언급한 ‘에슈’라는 오리샤 출신의 신이 관련된다. 요루바족에게 ‘에슈’는 인기 있는 신이다. 에슈가 특히 인기 있는 이유는 여신 ‘올로쿤’의 분노로 파도에 휩쓸려 죽을 위기에 처한 인간들을 구

28) 위의 책, 105쪽.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인생길’의 방향을 잡아주고 삶을 정리해 주기 때문이다. 예수에 대해서는 예언의 오리샤인 ‘이파’와 더불어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오리샤 신 ‘예슈’와 ‘이파’ 그리고 숫자 ‘16’

요루바족 창조신화에는 이 두 창조신 외에 ‘예슈’라고 하는 중요한 오리샤 신이 등장한다. 그가 중요한 이유는 물에 잠긴 대지를 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육지로 피신한 자들은 마침 육지를 방문 중이던 신 ‘예슈’에게 하늘로 돌아가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전해달라고 애원했다. 예슈는 그 전언을 신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늘로 돌아갔다. 오룬밀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땅 세계에 금줄을 타고 내려왔다. 그는 홍수가 그치고, 아프리카 대륙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도록 열심히 주문을 외웠다. 그렇게 해서 대홍수는 끝이 났다.<sup>29)</sup>

예슈는 요루바족에게 특별히 인기 있는 오리샤다. 인간을 홍수에서 구해주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중요한 선택의 기로나 혹은 인생에 몇 번 오지 않는 기회와 마주하게 될 때, 그 운명의 길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슈는 예언의 신 ‘이파’와 유사하다. 이파는 예언의 신이자 점술의 신이다.

Ifa est le médiateur divinatoire, envoyé sur Terre par Olorun pour y mettre de l'ordre; en tant que témoin de la destinée des Yoruba\*, il connaît le passé et le présent des individus. Lorsqu'un individu veut résoudre un problème ou a besoin d'assistance dans un événement, il consulte le babalawo(devin), qui détient la connaissance du système complexe de divination d'Ifa. La consultation nécessite plusieurs instruments : l'opon ijfa, plateau à divination sur lequel le babalawo trace les signes(odu) de

---

29) 위의 책, 105쪽.

sa réponse - il peut être rond ou rectangulaire, orné d'entrelacs, de serpents en léger relief ou de personnages avec la tête d'Eshu en effigie.<sup>30)</sup>

‘이파’는 ‘올로룬’에 의해 지상 세계의 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땅으로 보내진 예언의 중재자이다. 요루바족들의 운명의 증거자로서 이파신은 개인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있다. 개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혹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인간은 바발라요(babalawo, 점술가)에게 상담한다. 바발라요는 이파 점술의 복잡한 체계를 알고 있다. 점술을 보는 데는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하다. ‘오펜 이즈파’라고 하는 점술용 쟁반, 그 쟁반위에 바발라요는 자신의 대답의 표시들을 그린다. 그 쟁반은 원형 혹은 타원형이다. 테두리는 엮음 무늬, 얇은 부조로 된 뱀, 신 ‘에슈’ 머리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림 12]에서 보듯이 ‘이파 점술(Ifa divination system)’을 시행하는 점술가 ‘바발라요(Babalawo, 사제 혹은 사제의 아버지)’의 점술 쟁반, ‘오펜 이즈파(opn ijfa)’에는 예슈의 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그 까닭은 바로 예슈가 지니고 있는 특징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예슈와 이파는 모두 신의 위치에 있었던 오리샤들이었고, 인간과 신의 중재자이자 중개자라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었다. 예슈와 이파의 역할은 서로 비슷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파는 하늘에서만 살면서, 16개의 눈으로 인간사를 관찰한다.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는 ‘바발라요’라는 인간 대리자를 세운다.



[그림 12] 이파 점술 접시

하지만 예슈는 직접 신과 인간 사이를 오간다. 그는 발 빠른 중개자로 인간들을 포함한 여러 생명체들의 전언을 신들에게 전달해주면서, 인간 편에서 최고의 협력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예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인간들 사이에 갈등도 유발시킨다.

예슈는 어느 날 모자 장수로 변신하여 예쁜 모자를 만들어 팔고 있었다. 그때 어떤 남자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 중 한 명이

30) *l'ABCdaire des Arts africains*, p. 59.

예슈의 모자를 샀다. 그 부인의 남편은 “아주 보기 좋은 모자를 샀군, 당신에게 무척 잘 어울려”하며 칭찬을 해주었다. 이에 다른 부인도 곧장 모자 장수 예슈에게로 갔다. 마침 예슈는 먼저 모자보다 더 멋진 모자를 만들어 놓았다.

“저 모자가 아주 멋지군요, 제가 사겠어요.”

모자를 사가지고 돌아간 부인은 먼저 모자를 샀던 부인보다 더 많은 칭찬을 남편에게 듣게 되었다. 이에 먼저 모자를 샀던 부인은 다시 예슈에게로 가서 다른 더 멋진 모자를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두 부인 사이에 질투와 반목은 점점 심해지고, 남편도 부인들의 모자를 칭찬하는 데 지쳐, 마침내 부인들을 욕박지르기 시작했다.<sup>31)</sup>

위의 일화에서처럼 예슈는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인간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고, 인간들에게 장난도 치면서 인간의 삶을 방해하기도 한다. 즉 인간의 삶 속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관여한다. 그러나 언급한 ‘이파 점술’의 기원이기도 한 이파는 하늘에 있는 높은 야자나무에만 기거하고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그는 16개의 눈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있다. 이파는 과거, 미래, 현재를 본다. 특히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16개의 눈이 달린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관찰한다. 즉 관찰의 신이다.

이파의 이러한 눈은 이파 점술에서는 16이라는 숫자로 형상화되어 미래의 문을 여는 16개의 열쇠를 상징한다. 따라서 신화에는 미래가 16개의 창문이 달린 집으로 지어져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sup>32)</sup> 이파 점술은 16개의 조개껍질 혹은 야자열매를 이용해 점을 치는 요루바족 전통 점술이다.<sup>33)</sup> 지혜와 지식이며 운명의 신인 ‘이파’에서 유래한 이 점술은 2008년 유네스코에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 이파 점술은 [그림 13]과 같은 숫자 테이블을 이용해 행해진다. [그림 13]에서는 17개 숫자이지만 실질적으로 0을 제외하면 ‘16’의 숫자가 표기되어 있고, 여기에 16명의 신이 관여한다. 이파 점술

31) 『아프리카의 신화와 전설 - 서부 아프리카편』, 110-111쪽.

32) 위의 책, 109쪽, 참조.

33) William Bascom, *Yoruba Divination from Africa to the New World*, Indiana University Press, 1993, p.3.

“Sixteen cowries” is a form of divination employed by Yoruba of Nigeria and by their descendants in the New World.

Table 1. THE SEVENTEEN FIGURES (ODU)

1. Ọkánràn	D. Ọrányàn	7
2. Èjì Ọkò	E. Ibéjì (twins)	7
3. Ọgúndá	H. Yemoja	12
4. Iròsùn	F. Ọbáláṣfẹ̀n (i.e., Ọrìsháḿá)	22
5. Ọṣẹ́	G. Ọshun	15
6. Ọbàrà	I. Ọrúnmilá (i.e., Ifá)	19
7. Ọdì	J. Ègbẹ́ Ọgbà (i.e., àbíkú, children "born to die")	18
8. Èjì Ọgbè	A. Ọrìshá Rowà (a "white deity")	49
9. Ọsá	C. Ọya	19
10. Ọfún	B. Ọbànlá (i.e., Ọrìsháḿá) and Ọduá (i.e., Ọdúduá)	14
11. Ọwọ̀nrín	K. Ègún (i.e., Ègúngún)	13
12. Èjìlá Şẹ̀bọ̀rà	L. Shàngó	8
13. Ika	M. Shẹ̀ppọ̀nà	2
14. Ọtúrúpọ̀n	N. Okirikishi	2
15. Ọfún Kànràn	O. Ọgún	1
16. Irẹ̀tẹ́	P. Oluṣfin (a "white deity")	1
0. Ọpirá	Q. Ọgbóni	1

[그림 13] 이파 점술 숫자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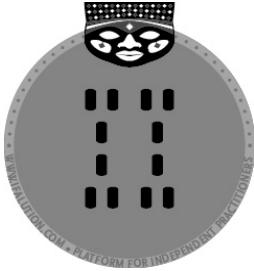
에 사용되는 숫자를 ‘오두(odu)’라 부르고 이 오두는 256개가 있다. 각 오두는 특정한 점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두를 ‘에세(ese)’라는 절로 세분하는데, 이 에세에는 요루바족의 모든 세계관(역사, 언어, 종교 등)이 나타나 있다고 전해진다.

[그림 14]의 ‘이요리 메지(Iwori Meji)’는 [그림 15]에서의 16개의 코퍼스 가운데 3번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해독은 바발라요<sup>34)</sup>만이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요루바족에게 ‘16’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다른 구전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설에 따르면 오리샤들이 하늘의 최고신 올로룬에게 대항한 적이 있다. 이 오리샤들은 16년에 걸쳐 왕위에서 물러나도록 올로룬을 설득했다. 올로룬은 마지못해 오리샤들에게 16년 동안만 통치해보라고 했다.

이처럼 숫자 ‘16’은 신화 속에서는 물론, 요루바족 전통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며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16’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신화 속에서 언급되며 전통문화 속에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으므로 요루바족에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증거들을 찾을 수 있었지만, 왜 ‘16’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34) 각주 28참조.



[그림 14] Iwori Meji, one of the sixteen principal of 256 Odus (corpus of Ifa literature)

BAALE OGBERA AROOPOLE TI SONOJO  
AGE OYO ILE

MARKAS DE ODU IFA

01 - Eji Oduji	02 - Oyeku Meji	03 - Iwari Meji	04 - Odu Meji
I I I I I I	II II II II II II	III III III III III III	IV IV IV IV IV IV
05 - Irosun Meji	06 - Okanran Meji	07 - Obara Meji	08 - Okiranran Meji
I I I I II II	II II II II I I	I I I I II II	II II II II II II
09 - Ogunlede Meji	10 - Odu Meji	11 - Iba Meji	12 - Okunrin Meji
I I I I II II	II II I I I I	III III I I II II	IV IV II II II II
13 - Okun Meji	14 - Irosun Meji	15 - Odu Meji	16 - Okun Meji
I I II II I I	I I I I I I	I I II II II II	II II I I I I

[그림 15] 16개의 이파 점술 코퍼스

#### IV. 나오는 말

본 연구에서는 옛 도시 일레이페를 중심으로 한 요루바족 유물과 신화에 대해 극히 일부분만을 다루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술은 거대하고 화려하고 정교했으며 정치도 나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요루바족의 신화에도 육지의 형성에서부터 홍수 신화 그리고 여러 신들과 오리샤 등,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이야기들과 유사한 정신문화의 기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서구사회는 제우스와 아폴론을 통해서만 인간 문명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서구 중심의 신화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오바탈라와 오두두와, 예슈, 이파 같은 오리샤 신들에게서도 인간의 정신문명은 근원 한다. 서구 중심주의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했거나 혹은 간과하고자 했을 것이다.

요루바족을 비롯한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종족은 그 종족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고 독특한 인간과 자연의 본성, 그리고 그 문화를 상징하는 신화는 존재하고 있었다. 단지 문자로 전해지지 않았을 뿐이다. 문자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서구 신화와의 차이점이다. 아프리카의 창조신화는 구전 경로에 따라 이야기에 변형이 가해진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에는 그리오(griot)라는 구전 이야기기를 전해주는 전문 이야기꾼이 존재하며, 여러 이야기들은 그들을 통해 전해진다. 어느 그리오의 제자가 자신의 스승 그리오에게 어째서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전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때 스승 그리오는 ‘기록은 인간의 기억을 퇴화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기억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임을 아프리카의 그리오들은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그들의 문화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힘이다. 월터 J. 흥은 “실제로 구술문화에서는 고도로 예술적이고 인간적 가치를 지닌 강력하고 아름다운 언어적 연행이 산출된다.”<sup>35)</sup>고 했다.

만일 요루바 문화와 문명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문명이 비논리적이고 미신적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태초의 것을 원형 그대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을 다른 문화의 기준에서 오도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타문화와 문명의 상대성과 그 문화를 판단하는 가치 기준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요루바족의 창조신화는 독특하고 창조적이고 정밀하며 매우 인간적이다. 요루바의 창조신은 실수와 반성을 반복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기꺼이 인간과 동물,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택한다. 그러나 서구 중심의 신들 특히 창조신은 인간과 완전히 분리된 세상에 살면서, 인간에게 권위적이고 절대적이다. 자신들의 신처럼 권위적인 유럽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아프리카를 거대한 허구’<sup>36)</sup>로 만들어 놓았다. 또한 그들은 조너선 스유프트(Jonathan Swift, 1667~1745) 표현대로 “아프리카 지도의 공간을 야만적인 그림들로 채우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구릉(丘陵)과 도서(島嶼)들이 없는 곳에 코끼리들을 그려 넣었다.”<sup>37)</sup>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대륙이 ‘스스로 설정한 정체성’<sup>38)</sup>을 미개하다 폄하했고 그들만의 ‘자생력’<sup>39)</sup>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제는 아프리카 대륙의 정체성과 자생력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할 시기이다.

35) 월터 J. 흥,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 임명진 역, 문예출판사, 2014, 28쪽.

36) 『오브 아프리카』, 72쪽 참조.

37) 위의 책, 70-71쪽.

38) 위의 책, 49쪽.

39) 위의 책, 49쪽.



## ■ 참고문헌

### 〈단행본〉

- 엘핀스톤 데이렐, 『나이지리아 남부 민담들』, 홍명희 역, 다사랑, 2016.
- 월레 소잉카, 『오브 아프리카』, 왕은철 역, 삼천리, 2017.
- 윌터 J. 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임명진 역, 문예출판사, 2014.
- 홍명희 외, 『아프리카의 신화와 전설 - 서부 아프리카편』, 다사랑, 2016.
- James H. Sweet, *Recreating Africa: Culture, kinship, and Religion in the African-Portuguese World, 1441-1770*,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3.
- John Mark, *Africa : Arts and Cultur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Laurick Zerbini, *l'ABCdaire des Arts africains*, Flammarion, 2004.
- Martin J. Gannon, Rajnandini Pillai, *Understanding Global Cultures*, Sage, 2010.
- Robert W. Strayer, *Ways of the World: A Brief Global History with Sources*, New York, Bedford/St. Martin's, 2012.
- William Bascom, *Yoruba Divination from Africa to the New World*, Indiana University Press, 1993.

### 〈인터넷 자료〉

- [https://en.wikipedia.org/wiki/Oyo\\_Empire](https://en.wikipedia.org/wiki/Oyo_Empire)(검색일 : 2017.08.20.)
- <http://www.blackpast.org/gah/oyo>(검색일 : 2017.08.20.)
- [http://www.bigmyth.com/download/YORUBA\\_CULTURE.pdf](http://www.bigmyth.com/download/YORUBA_CULTURE.pdf)(검색일: 2017.08.30.)
- <http://www.everyculture.com/wc/Mauritania-to-Nigeria/Yoruba.html>(검색일 : 2017.08.30)
- [https://en.wikipedia.org/wiki/Ijebu\\_Kingdom](https://en.wikipedia.org/wiki/Ijebu_Kingdom)(검색일 : 2017.09.01.)
- [https://en.wikipedia.org/wiki/Ijebu\\_Ode](https://en.wikipedia.org/wiki/Ijebu_Ode)(검색일 : 2017.09.01.)
- [https://en.wikipedia.org/wiki/Yoruba\\_art](https://en.wikipedia.org/wiki/Yoruba_art)(검색일 : 2017.10.31.)
- <https://www.google.co.kr/search?q=Iwori+Meji>(검색일 : 2017.11.03.)
- <http://the234project.com/arts-and-culture/nigeria/the-ijebu-kingdom/>(검색일 : 2017.10.31.)
- [https://www.amherst.edu/system/files/media/0424/Reduced%2520Yoruba\\_9\\_](https://www.amherst.edu/system/files/media/0424/Reduced%2520Yoruba_9_)

Centuries\_Chap\_6\_part\_1.pdf(검색일 : 2017.09.01)

<http://ask-dl.fas.harvard.edu/content/30-iwori-meji>(검색일 : 2017.11.01.)

〈박물관 사이트 자료〉

[https://www.britishmuseum.org/PDF/british\\_museum\\_benin\\_art.pdf](https://www.britishmuseum.org/PDF/british_museum_benin_art.pdf): *Benin : an African Kingdom*,(검색일 : 2017.08.20.)

[https://www.metmuseum.org/TOAH/hd/beni\\_2/hd\\_beni\\_2.htm](https://www.metmuseum.org/TOAH/hd/beni_2/hd_beni_2.htm)(검색일 : 2017.09.12)

〈백과사전 사이트 자료〉

[http://www.newworldencyclopedia.org/entry/Oyo\\_Empire](http://www.newworldencyclopedia.org/entry/Oyo_Empire)(검색일 : 2017. 08.20)

<https://www.britannica.com/place/Ile-Ife>(검색일 :2017.09.01.)

[http://logbaby.com/encyclopedia/oyo-empire\\_12562.html#.Wf573Gi0NPY](http://logbaby.com/encyclopedia/oyo-empire_12562.html#.Wf573Gi0NPY)  
(검색일 : 2017.09.01.)

<https://www.britannica.com/place/Ijebu-Ode>(검색일 : 2017.10.31.)

❖ ABSTRACT

*Recognition of cultural relativity through  
Yoruba culture in the ancient city of Ilé-Ifé, Nigeria*

Cho, Ji-Sook

This paper examines the origin of the current Nigerian Yoruba artistic and cultural tradition through ancient artifacts and creation myths centered on Ilé-Ifé (or Ifé) located in the southwestern part of Nigeria and recognition of cultural relativity. In the oral tradition, kingdoms of Ijebu, Oyo, and Benin all have their origins in the ancient city of Ilé-Ifé, the cradle of Yoruba culture. Their founders were sons of Oduduwa, the god of Yoruba. In this way, kingdoms built around Ilé-Ifé were closely connected with culture, religion, and socie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Yoruba culture, research on Ilé-Ifé, the source of their artistic and cultural traditions, is very important. The Yoruba are deeply rooted in Ilé-Ifé. They have been steadily preserving their artistry since the beginning. They have been using it in their lives to this day for centuries.

Their evidences are mythology and Ifa divination system. They are cultural heritages that represent the art of Yoruba and the spiritual culture. Ifa divination system is one of Yoruba traditions associated with Yoruba gods 'Eshu' and 'Ifa'. It has been conducted among the Yoruba until now. If the culture and civilization of Africa, including these Yoruba traditional customs, are deemed illogical and superstitious, it would mislead their efforts to preserve the origin in its original form. If so, one should understand the relativity of other cultures and civilizations and the need for diversity and flexibility of value standards to judge their cultures and civilizations.

Key Words : Ilé-Ifè, Yoruba, statue, creation myth, cultural relativity

■ 논문접수일 : 2017. 11. 10

■ 심사완료일 : 2017. 11. 30

■ 게재확정일 : 2017. 12. 1